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3. 10. 30. (월) 18:00
 회의 장소 기초학문관 51205
 회 차 55 - 27
 서 기 인사운영국장 김채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자연과학대학 ○
정보통신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공과대학 ○
건축학과 ○	약학대학 ○	생명공학대학 ○
스포츠과학대학 ○	의과대학 -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
동아리연합회 ○		

전체 단위 수: 12 (정족수:8) / 출석 단위 수: 12



1. 단위 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차 회의 완료
- 나. 10 월 SKKUPlace 완료

2) 자연과학대학

- 가. 없음

3) 정보통신대학

- 가. (10.30) 제 13 대 정보통신대학 통합선거 시작

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가. (10.27) 제 29 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기회의

5) 공과대학

- 가. 없음

6) 건축학과

- 가. 없음

7) 약학대학

- 가. (10.29) 약학대학 동문회 등반대회 진행완료

8) 생명공학대학

- 가. 없음

9) 스포츠과학대학

- 가. 없음

10) 의과대학

- 가. 없음

11)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 가. (10.27) 글바메의밤 진행 완료
- 나. (11.02) 랩오픈의날 진행 예정

12) 동아리연합회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총학생회

가. 임시 전학대회 추가 논의안건 발의

[성균융합원 2024 년 신설학과에 따른 지위 관련 논의]

- 2024 년 성균융합원 하위에 에너지과학과가 신설될 예정임. 현재는 성균융합원 내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이하 글바메)만 있기 때문에 글바메가 독립단위로서 인정되는 상황임. 에너지과학과가 신설되면 글바메는 독립단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성균융합원이 중앙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지게 됨. 회칙 개정 이전에는 신설 학생회가 생기면 전학대회를 거쳐 인준을 했어야 하나, 회칙이 개정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짐.
- 총학생회칙 제 98 조의 2 (독립단위) 제 1 항제 2 조 '전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캠퍼스회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를 근거로 제 2 호 '소속 단과대학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학부 또는 학과'에 해당하는 글바메는 전학대회를 거쳐 독립단위로서 인준을 받았음. 총학생회는 인준을 받고 중운의 지위를 얻었던 글바메의 경우 인준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총학생회는 오늘 7 시에 있는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해제하여 이번 11 월에 있을 글바메의 선거가 과 학생회 선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전학대회에서 [글바메의 독립단위로서의 인준을 해제한다]는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 진행할 예정임.
- 정보통신대학: 내년엔 에너지과학과 학생들이 들어온 이후 중운 지위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 질문함.
- 총학생회장: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바메 과학생회 회장단이 중운의 지위로 3 월까지 출석 후 1 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통해 지위 해제를 받아야 함을 설명함. 이러한 상황을 글바메 과학생회는 원하지 않기에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중운 지위 해제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함.

**[총학생회 임기 말 글바메를 독립단위 지위에서 해제한다'는 전학대회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

➔ 찬성 12, 반대 0, 기권 0 으로 가결됨.

나.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의 규칙화

- 총학생회 내부에서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 자체를 수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규칙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음. 이번 회개소위를 통해서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세칙에 적고, 공식 채택까지 이미 완료하여 그 자체를 이미 법제화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려면 수정에 대한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임. 조항의 추가는 중운에서만 의결하면 되며, 이번 논의는 가이드라인을 규칙과 동일한 지위로 올리면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임.
-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에 학생회비 운용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또한 회칙의 범주 안에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재정운용세칙 하위의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에 가이드라인의 제정, 개정, 폐지는 총학생회칙 제 13 장제 143 조를 따르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동아리연합회: 의결은 언제 진행하는지 물음.
- 총학생회장: 오늘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답함. 재정운용세칙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긴 하나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두고 규칙의 지위로 올리면 수정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함.
- 자연과학대학: 가이드라인을 회칙의 범주에 넣으면 강제성이 너무 세지 않을까 질문함.
- 총학생회장: 이미 회칙의 범주 안에는 있다고 답변함. 이를 위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개정을 했던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강제성이 덜해질 것이라 설명함.
- 부총학생회장: 규칙으로 올리는 것이 수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라 밝힘. 규칙으로 올리지 않아도 가이드라인만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함.



- 총학생회장: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내부에 수정과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이를 위해 규칙으로 올리려는 것이며, 이는 후대를 위한 배려로서 발의된 것임을 설명함.
- 공과대학: 재정세칙 하위 규칙으로 올리려는 것인지 물음.
- 자연과학대학: 따로 규칙으로 올리기보다는 가이드라인 내부에 그러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 부총학생회장: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중운의 의결로 수정 가능하다.' 정도의 조항은 어떨지 의견을 물음.
- 총학생회장: 중운의 의결로 수정 가능하다는 것은 규칙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우려를 표함.
- 부총학생회장: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면 지위는 규칙과 다를 바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주장함.
- 공과대학: 강제성을 띄지 않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인데, 이를 규칙으로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함.
- 자연과학대학: '중운 내부의 논의로 수정 가능하다' 정도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지 제의함.
- 총학생회장: 우선 의결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사캠 측에 의견 전달하겠다고 말함.

다. 농구장 이설

- N 센터 옆 농구장이 없어질 예정임. 내년엔 신설학과가 많이 생기는데, 그 신설학과가 사용할 수 있는 CNS 동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가건물을 현재 농구장 위치에 세울 예정이라고 전달받음. 해당 사항은 관리팀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변동되기 어려울 것임. 현재 농구장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설하고자 함.
- 현재 제안된 방안은 복지회관 앞에 우레탄을 깔아 농구장을 신설하고, 족구장을 대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임. 다만, 복지회관 앞 무대를 많은 동아리와 단과대가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우려가 되는 상황임.
- 스포츠과학대학: 대운동장 축구 골대 뒤쪽에 농구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함. 복지회관 앞이 농구장이 된다면, 하나의 농구장만 설치되고 남은 공간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공간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설명함. 대운동장 쪽으로 농구장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함. 단 농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명 문제와 먼지, 모래의 관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대운동장에 농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함. 대운동장의 경우 스포츠과학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팀과 조율이 된 사항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임.

- 총학생회장: 풀코트 하나가 복지회관과 대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 설명을 요함.
 - 스포츠과학대학: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 답변함.
 - 정보통신대학: 대운동장은 골대와 신관 사이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 물음.
 - 스포츠과학대학: 그렇다고 답함.
 - 총학생회장: 이설 장소에 대한 중운의 의견을 물음.
 - 공과대학: 족구장을 없애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
 - 총학생회장: 관리팀 측에서는 복지회관 앞을 농구장으로 바꾸는 대신 무대는 그대로 두고, 농구 골대를 이동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며,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전달하겠다고 말함.
- ➔ 농구장 이설은 대운동장으로 하되, 농구 골대는 고정형, 조명이 필요함.
- 자연과학대학: 대운동장에 무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물음.
 - 총학생회장: 무대 신설은 비용적, 공간활용적으로 문제가 많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3. 기타 안건 및 건의사항

총학생회장	박근아
부총학생회장	이(진)유
자연과학대학	김인성
정보통신대학	김용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서)
공과대학	김희
건축학과	유승빈
약학대학	이승엽
생명공학대학	김인
스포츠과학대학	김원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이시행
동아리연합회	이홍준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